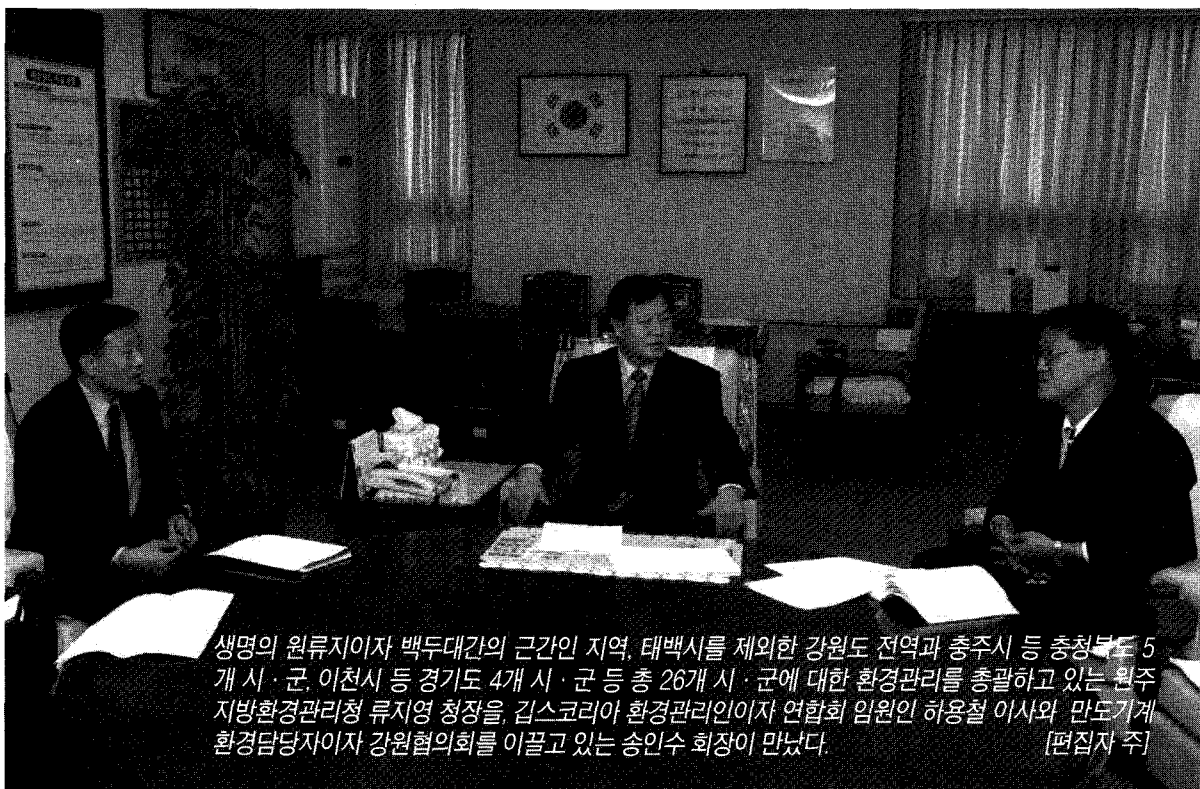


"강원도의 환경관리가 무너지면 전국의 환경이 위태로워 집니다."



생명의 원류지이자 백두대간의 근간인 지역, 태백시를 제외한 강원도 전역과 충주시 등 충청북도 5개 시·군, 이천시 등 경기도 4개 시·군 등 총 26개 시·군에 대한 환경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원주 지방환경관리청 류지영 청장을, 김스코리아 환경관리인이자 연합회 임원인 하용철 이사와 만도기계 환경담당자이자 강원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송인수 회장이 만났다. [편집자 주]

· 송인수 회장 :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의 중심지역에 위치한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류지영 청장 : 1980년 7월 3일 발족된 환경청 소속의 "춘천환경측정관리소"를 토대로 1986년 12월 15일 원주환경지청으로 개칭하여, 1990년 1월 3일 환경청이 환경처로 확대 개편되면서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승격되었으며, 1994년 5월 4일 정부기능 조정에 따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은 태백시를 제외한 강원도 전역과 충

주시 등 충청북도 5개 시·군, 이천시 등 경기도 4개 시·군 등 총 26개 시·군에 대한 환경관리를 총괄하면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전환경성 검토, 자연생태계 보호, 지정폐기물관리 및 국가·지방산업단지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환경오염측정망 운영, 취·정수장 등 상수원 관리, 동해안지역의 환경기초시설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 하용철 이사 : 청장님은 환경부에서 상·하수도, 수질보전, 자연환경 등 여러 분야를 두루 담당하시다가 원주지방



환경관리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부임하신지 만년이 지났는데 재임기간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 류 :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생명수인 한강 상류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업무의 강화 및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지리정보 체계 구축, 백두대간 및 접경지역 등 자연환경 우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댐 건설 등 완공 후 환경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협의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준공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는 “사전검사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동강유역의 천연동굴 보호를 위한 동굴조사를 언론기관 및 학계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하천에 서식하는 희귀어종 보호를 위한 어도 설치지침 작성 및 적정설계를 위해 “어도설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존가치가 있는 13개 동굴을 집중관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해결되지 않고 있는 폐광문제, 개발보전의 조화 등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설득력 있는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송 : 환경행정규제 완화로 기업 및 전문인력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로 환경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난, 환경전문인들의 비전 상실 등이 있는데 이의 개선을 위한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류 :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환경분야에서도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나, 환경관리인 선임기준 완화로 환경학과 졸업생들이 취업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에 관한 국제기준 및 무역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환경분야의 전문가 및 환경관리인의 역할은 더욱더 부각될 것이며, 환경 신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으로 환경분

야의 고용창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부터 정부에서는 환경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환경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동북아

(중국) 국가로의 진출 등 다양한 환경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환경전문가 및 환경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를 전담할 환경평가사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환경학과 졸업생 및 환경전문인들의 취업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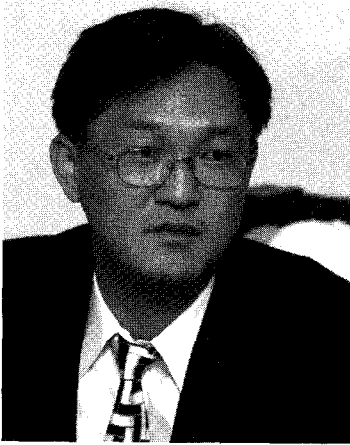


· 하 : 환경평가사 자격증 신설은 현시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데 추가로 청장님이 보시는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 류 : 이 제도는 시기적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만 앞으로의 운영이 숙제로 남아있죠. 공인중계사 자격증의 경우는 취득하면 바로 업무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환경관련 자격증은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가대행비의 현실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타 평가비의 경우에는 적정산정기준이 있는데 반해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대부분 작업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덤핑과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러나 지속적인 문제인식으로 연구·개선해 나간다면 타 자격증 못지 않은 효과가 나타나리라 봅니다.

· 송 : 이곳 청정지역내 위치하고 있는 배출업체의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역할과 동기부여를 위하여 이



들 중소기업에도 환경친화기업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떤?

· 류 : 우리청 관내의 환경친화기업 사업장은 6개소(강원지역 2개소)로서 다른 지

방청에 비해 매우 적은 편입니다. 이는 관할구역 대부분이 청정지역으로서 공장입지가 제한되어 공업단지 및 배출업소들이 적으며,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 및 신기술의 도입 등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원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중소기업에서도 청정기술의 도입, 환경시설의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경우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청 관내에는 레저산업과 시멘트업종 등이 많기에 지역의 특성을 살려 이들 업종의 사업장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어 기업의 자율환경관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 :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은 작년부터 환경관리 모범업체의 환경관리인 등으로 구성된 "환경도우미"를 활용하여 환경관리가 취약한 배출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운영실태는 어떠한지요?

· 류 : 여기 계신 송 회장께서 건의한 제도인데 환경도우미는 환경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오랜 경력자 중에서 분야별, 지역별로 위촉하였으며, 환경관리가 어려운 인근 중·소 기업체와 군부대 등에 환경관리분야 전반에 걸쳐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여 지역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도우미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방법, 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규명, 환경관련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방법이나 법규 등에 대하여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회의 등을 개최하여 환경기술·정보 등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로서 만족스런 결과는 없지만 이천·여주 지역의 세차장 환경관리인 80여명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운영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세업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기술지원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으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송 : 공무원으로서 후배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나 환경철학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류 : 제가 20여년간 환경분야에 근무하며 느낀 것은 환경행정은 복잡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과학적이고 객관화된 기초자료의 확보 및 분석이 매우 중요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욕구는 매우 높아졌으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여건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에 대한 작은 관심과 환경사랑 실천을 생활화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합니다.

· 하 : 뛰어난 업무추진력으로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기억에 남거나 보람을 느꼈던 일, 지역환경관리자로서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싶습니다.

· 류 : 89년도 제가 원주청 지도과장으로 근무할 때, "공단 환경관리협의회" 회장이 운영하는 모 업체에서 수년간 비밀배출구를 통하여 폐수를 무단방류를 하는 것을 야간잠복근무로 적발하여, 기업 대표자의 환경에 대한 이윤배반적인 행동에 분노하며 기업 환경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높여 주었던 일, 99년도 자연정책과장 재직시 산림청으로부터 “야생 동·식물 관리업무”를 이관 받아 “밀렵감시대”를 창설하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을 강력히 단속

하여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제도 정착 및 국민들의 의식 전환에 기여하여, 야생동물들의 개체수를 늘린 일들이 기억에 남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른 지방환경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환경 관리의 중추 기관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나 업무는 매우 많으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이나 예산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지역환경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환경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나, 환경예산의 조정권한의 부여 등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송 : 마지막으로 일선에서 일하는 환경관리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류 : 환경관리인과 저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규제완화, 경제악화 등의 여러 요인으로 관리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 저 역시 힘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환경이 버거워집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준비하는 환경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로 인해 힘이 있는 환경인, 환경관

리의 리더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긍심과 위상은 지금의 준비와 노력에 따라 비례한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하 : 감사합니다.

류지영 청장의 주요 약력

● 생년월일

49. 12. 03

● 학력

- 광주농업고등학교 농업토목과 졸업
- 서울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 (공학석사)

● 경력

- 환경부 생활오수과장
- 환경부 하수도과장
- 환경부 상수도과장
- 환경부 평가제도과장
- 환경부 환경평가과장
-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 원주지방환경관리청장(2000. 9-현재)

● 상훈

대통령 표창 2회('96, '98)

● 주요저서

환경영향평가 실시수법 (신광출판사)

